

# 類比推理를 통해 본 韓醫學 理論構成의 과정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哲學科\*\*  
白裕相\*·鄭宇鎮\*\*

## A Study on Formation of Oriental Medicine Theory based on Analogical Inference

Dep.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Kyung Hee University

Dep. of Oriental Medicine Philosophy,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Baik You-Sang · Jung Woo-Jin

From the study on A Study on A Study on Formation of Oriental Medicine Theory based on Analogical Inference,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Analogical inference belonging to informal logic has very important point that it makes new knowledges of unknown field from basis of common knowledge field. The form of Analogical Inference is "A: a=B: (b)".

In 『Naegyong(內經)』, models of analogy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is that of analogical inference making new knowledges in company with effects of Heung-gi(興起), Another is to unite common knowledges. While the example of analogy between military science and medicine belongs to type of the former, example of bureaucracy and medicine belongs to type of the latter, that based on rearrangement of common knowledge. Two type have similar system of national government or military management in basis.

In such process of analogical inference, we expect that new knowledges of Oriental Medicine would be accumulated in the future, in the same way of the past

Key words: Analogy, Analogical Inference, Informal Logic, Yubichuri(類比推理)

### I. 緒論

한의학은 응용학문인 동시에 철학적인 특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여기서 철학적 특성이란 사유를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한의학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방식에 의하여 내부적 발전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발전의 결과들은 임상 효과를 통하여 드러나는 수많은 상호

관계를 통하여 검증되어 왔다. 물론 반대로 임상 치료 속에서 한의학 발전의 동력이 만들어져 이론으로 정립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內經』이론체계의 특성은 比類取象이라는 표현 속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한의학은 배경이 되는 동양 학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象을 이론체계의 기반으로 삼았다. 象을 통하여 체계적 사유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類比라는 논증의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類比는 서양철학에서 발전해 온 연역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오히려 현실적인 논리체계라 할 수 있다. 比는 象을 매개로 대상을 견주어 보는 것

\* 교신저자: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961-0326, [baikys@khu.ac.kr](mailto:baikys@khu.ac.kr)

이며 그 유사도에 따라서 類가 결정된다. 이때의 유사도는 물론 계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內經』에서는 이미 類比推理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示從容論」에서는 “汝受術誦書者, 若能覽觀雜學, 及於比類, 通合道理.”라 하여 귀납적 과정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으며, “夫聖人之治病, 循法守度, 援物比類, 化之冥冥, 循上及下, 何必守經.”라 하여 유비적 사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같은 편에서 “不引比類, 是知不明也.”라 하였으며 「微四失論」에서도 “不知比類, 足以自亂, 不足以自明.”이라 하여 단순히 比類가 법칙과 현실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유를 통하여 진리에 접근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최근 한의학계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살펴보면 이론 연구와 임상이 괴리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임상 분야에서는 이전 한의학의 지식들은 증명 될 수 없는 지식의 편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론 연구 분야에서는 이를 임상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고 보고 그 실용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類比는 이론구성과정뿐 아니라 변증이라는 임상과정에 여전히 쓰이고 있는 사유형식이다. 그러므로 類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론과 임상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 이론의 추론과 실증적 검증의 상호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그 추론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辨證의 과정에 사용되는 類比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辨證이라는 임상에 사용되는 類比的 사유형식을 고찰하기에 앞서 이런 변증을 가능하게 하는 『內經』 이론체계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글의 연구 방향은 궁극적으로 『內經』의 전 범위에 걸치는 사유형식을 고찰하는데 있다. 그러나 『內經』의 사유형식은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고 또한 지나치게 많은 영역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의 導論으로서 한의학의 신체관 생리관 병리관등을 織造한 결과물인 『內經』 이론체계의 주된 형성 과정과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비록 전체는 아니더라도 『內經』 이론체계의 상당한 부분을 類比

推理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類比가 『內經』 이론체계의 주된 圖面 중 하나였음이 이 글을 통해 증명하려 한다.

## II. 本論

『內經』 이론체계가 類比에 근거해 형성되었거나 표현되었음을 보이기 위하여, 먼저 類比推理를 포함하는 類比적 思惟<sup>1)</sup>의 예를 『內經』 성립기 이전의 문헌에서 찾아내 類比的 사유가 고대 중국의 사유 유형에서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살펴보고 아울러 類比推理의 형식과 특성을 찾아내는 사전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sup>2)</sup> 이와 같은 사전작업 위에서 類比的 사유의 유형분류를 통해 『內經』 이론체계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논구하겠다.

### 1. 형식논리와 비형식논리

類比推理는 형식/비형식논리의 분류에 따를 때, 비형식논리에 속한다. 비형식논리는 형식의 의미 구

- 1) 推理는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사유과정이다. 그러나 비유는 이와 같은 새로운 지식의 획득이라는 효과는 없고 다만, 記述상의 효과를 고려한 표현법에 불과하다. 단순한 표현법으로서의 비유에는 미지의 영역으로의 도약은 없고 특정한 기지의 영역에서 다른 기지의 영역으로의 확장에 그친다. 類比的 영역에 속하는 類比推理와 단순한 비유는 이와 같이 의도하는 효과와 전용되는 영역의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A:a=B:b$ 라는 기본 형식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이 글에서는 類比推理와 比喩를 포괄하는 의미로 類比 혹은 類比的 사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 2) 類比推理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김옥선의 ‘類比推理의 유형과 기준’과 ‘類比推理와 인간사고의 특징’을 참고할 수 있다. 김옥선은 자신의 논문에서 類比推理를 귀납추리와 구분하였고 類比推理의 유형을 유비추리의 목적과 범위를 기준으로 설명을 위한 類比推理와 문제해결에 쓰이는 類比推理 그리고 영역간의 유비추리와 영역내의 類比推理의 넷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인지심리, 인공지능영역의 연구성과를 근거로 類比推理의 판단기준을 고찰했다. 철학계에서 類比推理의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것과는 달리 심리학분야에서는 類比推理의 연구성과가 제법 누적되어 있다. 심리학계의 類比推理에 관한 연구의 개관은 이영애의 ‘類比思考 analogical thinking’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논문의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에 기재해 두었다.

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sup>3)</sup> 이 글에서 우리는 편 의상 비형식논리를 전통적인 연역추리가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본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기원하여 기호논리학으로 발전해온 서구 논리학의 上 席은 연역논리의 것이었다. 연역논리는 전제의 진리 성이 결론의 진리성을 보증하는 논리체계로 그 논증 의 정당성은 전적으로 형식에 의존하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다. 연역논리는 자신의 정당성을 현실사건으로서의 내용으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엄 밀성과 확실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역논리 는 그 엄밀성과 확실성에 반해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의 철학자들에 의해 시작 된 비형식논리학 운동<sup>4)</sup>은 이와 같은 연역추리의 한 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비형식논리로 볼 수 있는 것에는 귀납법, 유추 법, 변증법등을 들 수 있었는데 類比推理에 대한 연 구는 철학계보다는 주로 인지과정, 인공지능 등의 분 야를 다루고 있는 심리학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sup>5)</sup> 상술했듯이 연역법은 결론의 진리성이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논증체계다. 그러므로 결론의 정보는 이미 전제에 들어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연역추리를 통해서 는 어떤 새로운 정보도 얻지 못한다. 이에 반해 類比 推理는 새로운 지식정보의 획득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어 왔다. 그래서 심리학분야에서 규정한 類比의

어떤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심리학적으로 유비사고 (analogical thinking) 또는 類比推理(analogical inference)는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나 수학, 물리 학, 화학과 같은 전문영역문제의 해결, 창의적 사고 등에 중요한 심성과정으로 알려져 있다.’<sup>6)</sup> 유비추리 는 특정영역이나 사물에 대한 기지의 지식을 기반으 로 미지의 사물이나 영역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추 리형식이다. 이를 형식적으로 표현하면  $A:a=B:(b)$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A는 既知의 영역이나 사물을 a 는 그런 A의 특성을 B는 未知의 영역이나 사물을 (b)는 A가 a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근거해서 B 가 지니고 있으리라고 추리된 특성을 가리킨다.) 그 런데 類比推理는 b가 언제나 ( )안에 들어갈 수는 없 다는 점에서 연역추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불확실 성과 非엄밀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학교: 학교장= 동사무소: ( )의 類比推理를 요하는 문제 상 황에서 동장이라는 답은 적합하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 例의 類比推理를 요하는 상황이 각 기관의 장 을 요구하는 맥락이라면 동장이라는 답이 적합하나 각 기관의 최고령자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괄 호 안에는 젊은 동장이 아닌 정년을 앞둔 6급 김주사 가 들어가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類比 推理가 새로운 지식의 각득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 음에 비해 그 추리 형식을 통해 얻어지는 답이 맥락 과 무관하게 형식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없다는, 즉 맥락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3) 형식의 의미는 플라톤에게서 기원한 형상, 논증의 내용을 추상한 후에 남는 구조, 일련의 규칙에 따라 발생되어서 규정된 推理의 절차 등으로 나뉜다. 類比推理에도 推理의 정 당성을 가름하는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형식의 세 번 째 의미 즉, 일련의 규칙에 따라 발생되어서 규정된 절차라 는 의미에 근거한다면 유비추리도 형식논리에 속한다. 형식 논리와 비형식논리에 대한 개관적 내용은 박준호의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과 논증평가 개념’을 참조할 것. 범한철학 제 34집.

4) Blair, J. Anthony(1992). 357. 앞의 글(박준호; 비형식논 리학의 논증과 논증평가 개념)에서 재인용

5) 철학적 접근방법은 유추의 정당한 기준을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하므로 단순히 유추라는 推理과정을 기술하는 심리학 적 접근방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類比推 理의 특성에 기해 한의학이론체계의 특성을 살피려는 이 글 의 목적에서 볼 때는 類比推理의 심리과정을 기술한 심리학 의 연구성과도 간과할 수 없다.

## 2. 類比推理의 실례와 형식

우리는 논어 안에서 새로운 지식의 覺得이라는 類 比推理의 장점이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이는 예를 찾 을 수 있다. 공자사후 제자는 몇 개의 분파로 나뉘는 데, 그 중 주목되는 학파중 하나는 魏文侯의 스승을 지냈던 子夏학파다. 좀 편협한데가 있어 보였던 자하 는 시를 인용하여 앎을 확장시킨 어느 대목에서 공자 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6) 이영애, 유비사고 analogical thinking. 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p. 19.

자하가 물었다. “예쁜 웃음에 귀여운 보조개, 예쁜 눈에 검은 눈동자, 흰색으로 채색을 하는구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채색은 바탕을 회계 하는 것 뒤의 일이라는 뜻이다.” 말했다. “예가(본바탕을 준비하는 것보다) 뒤라는 얘기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나를 일으켜 주는 이는 商이로다. 비로소 시에 관해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sup>7)</sup>

중간에 공자의 힌트가 있기는 하였으나, 자하는 시를 매개로 하여 지식을 확장시켰다. 그런 확장적인 깨달음은 채색에 관한 사전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바탕을 회계 한 후에야 색을 칠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의 각도에 대한 찬양을 목도한다. 이 글의 맥락에서 볼 때, 그런 찬양은 類比推理의 특성에 대한 찬양과 다름없다. 그런데 그림의 영역으로부터 인품과 관련된 禮後라는 깨달음으로의 도약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선 지적할 것은 素자의 의미다. 素자는 ‘회다’라는 뜻으로도 ‘바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다른 근거로 구조적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흰 바탕의 마린: 채색과 ‘인품의 준비: 예의 구비’ 간의 구조적 유사성이 이런 정신적 도약(mental leap)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모든 類比推理에 既知의 영역(繪畫)과 未知의 영역(禮)에 그 의미가 두루 미치는 素와 같은 字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조적 유사성은 類比推理의 기준으로서 보다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구조적 유사성은 ‘A(既知의 原영역): a(원영역의 특성 혹은 대상)=B(未知의 目標영역): b(목표영역의 특성 혹은 대상)’로 假設된 유비추리 형식에서 A에서 a가 차지하는 위치와 B가 b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유사성이다. 이 가설모형에서 ‘=’는 일종의 覺得의 과정인 興起를 함축한다.

비유법을 주로 사용하는 시는 이러한 類比의 특성을 바탕으로 춘추기 정치의 수단으로 또 외교적 연사

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공자는 「子路篇」에서 말하기를 ‘시 삼 백편을 암송하면서도 정사를 당해내지 못하고 사망으로 사신 가셔도 일을 알아서 처리하지 못하니...’<sup>8)</sup>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외교적 연사의 경우에 부합하는 예를 시에서 찾아 표현하지 못함을 나무란 것이다. 자하에 대한 칭찬을 들어 말한다면 공선생의 지적은 既知에서 未知로 나아가지 못하는 즉 興起하지 못하는 것을 꾸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춘추 시기에 대한 기록인 좌전에서 시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외교적 연사로 쓰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진나라 군주는 온에서 제후들과 잔치를 열고 제대부로 하여금 춤추게 하되 말하기를 시를 노래함에 반드시 뜻이 같은 것으로 하라고 했다. 그런데 제 고후의 시는 뜻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순언이 노하여 말하기를 제후 중에 다른 뜻이 있는 이가 있다고 했다.’<sup>9)</sup> 정나라 군주가 수릉에서 조맹에게 연회를 베풀었을 때, 공자 전, 백유, 공자 서, 공자 산, 대숙과 이 공자 석이 따랐는데, 조맹이 여러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공자 전의 草蟲편의 시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표시하였고, 백유의 노래는 자기 나라에 불화가 있음을 비춘 것이어서 듣기를 꺼리게 된다.<sup>10)</sup>

위의 예에서 보이듯이 춘추시기 시는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sup>11)</sup> 이와 같은 시의 인용은 비록 단순한 표현

7) 漢文大系本 1卷·論語·八佾. 東京. 富山房. 1912. p. 36. “子夏問曰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繪事後素. 曰禮後乎? 子曰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8) 漢文大系本 4卷·論語·子路. 東京. 富山房. 1912. p. 54. “子曰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

9) 漢文大系本 16卷·左傳·襄公十六年春. 東京. 富山房. 1912. p. 3. “晉侯與諸侯宴于溫, 使諸大夫舞曰歌詩必類. 齊高厚之詩不類. 荀偃怒, 且曰諸侯有異志矣.”

10) 漢文大系本 27卷·左傳·襄公二十七年. 東京. 富山房. 1912. p. 37. “鄭伯享趙孟于垂隴, 子展, 伯有, 子西, 子產, 子大叔, 二子石從. 趙孟曰七子從君, 以寵武也. 請皆賦, 以卒君貺, 武亦以觀七子志. 子展賦草蟲. 趙孟曰善哉, 民之主也! 抑武也, 不足以當之. 伯有賦鶉之賁賁. 趙孟曰床第之言不踰闕, 況在野乎? 非使人之所得聞也.”

11) 楊向時. 左傳賦詩引詩考. 臺北. 中華叢書編審委員會. pp. 1-11. 위의 두 예는 모두 향연장에서 시를 읊조린 것이다. 춘추시기 향연에서 시를 노래하거나 읊조리는 것은 일종의 의식이었다. 시를 연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경우도 있었고

법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춘추시기 類比的 사유가 문학의 영역을 넘어서 일상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전국시기에 들어오면서 類比的 사유는 본격적으로 사상가들 간의 논변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예를 孟子和 墨子에서 찾을 수 있는데, 孟子는 자신의 역사적 소명을 말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논변을 하는 것은 도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성왕이 일어나지 않으니 제후는 방자하여졌고 처사는 어지러이 논의하였다. 이에 양주와 목적의 말이 세상에 그득하여 세상의 말이라는 것은 양주에 귀착되지 않으면 墨子에 들어간다……나는 이를 두려워하여 성인의 도를 보위하고 양목을 막으려 한다.’<sup>12)</sup>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논변의 쓰임에 대해서 『墨辨發微』의 저자인 譚戒甫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가 언사에 쓰인 것은 시대에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회가 급변함에 …… 교제하는 사이에 점차 시에서 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sup>13)</sup> 孟子에서 類比的 사유형식은 주된 논변의 방식이었다.

告子가 말했다. “성은 버드나무요, 의로움은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품을 인자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은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sup>14)</sup>

앞에서 우리는 類比推理의 기본적 형식은 A: a=B:

연주에 맞추지는 않으나 정형화된 의식의 일종으로 읊조리는 경우도 있었다. 楊向時는 앞의 것을 歌詩라 하고 뒤의 것을 賦詩라고 했는데 정의에 인용되어 있는 班固의 견해를 따라 賦詩는 노래하지 않고 읊조린 것이라고 했다. 양향시에 따르면 賦詩는 다시 정형화된 경우(例賦)와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 위한 경우(特賦)로 나뉜다. 위의 두 예는 양향시의 분류에 따르면 향연에 쓰인 부시중에서도 특시의 범주에 속한다.

12) 漢文大系本 6卷·孟子·滕文公章句下. 東京. 富山房. 1912. p. 20. “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議, 楊朱 墨翟之言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 則歸墨. 吾爲此懼, 閑先聖之道, 距楊墨, 孟子·滕文公章句下”

13) 譚戒甫. 墨辨發微 墨辯正名(1). 北京. 中華書局. 1996.

14) 漢文大系本 11卷·孟子·告子上. 東京. 富山房. 1912. p. 1. “告子曰性猶杞柳也. 義, 猶柎枲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柎枲.”

b이며 구조적 유사성이 類比推理의 정당화에 있어서의 일차적 판단기준임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告子가 행한 類比推理의 예를 형식화하면 A(버드나무): a(그릇)=B(사람): b(인의)로 표현할 수 있고 이 推理는 버드나무와 그릇의 관계가 사람의 성품과 어질고 의로운 성품간의 관계가 같다는 점에 기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유사성이 類比推理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므로 위의 그럴듯해 보이는 類比推理에 대한 孟子의 반론은 구조적 이질성을 겨냥한다.

“그대는 버드나무의 성질을 따라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버드나무를 꺾은 이후에야 그릇을 만들 수 있는가. 만약 장차 버드나무를 꺾어서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면 또한 장차 사람의 성품을 꺾어서 인자하고 의롭게 만들겠는가.”

孟子는 버드나무→그릇의 과정이 인위적인 왜곡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로 그릇에서 뜨거운 여름날 강가에 서서 그 가늘고 풍성한 가지와 이파리마다 생명의 수분을 머금고 흐느적거리는 버드나무의 생동하는 성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버드나무→그릇과 사람의 성품→인간의 類比가 옳은 類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성품을 왜곡시켜 인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孟子는 이 왜곡을 賊자로 표현했다. 만약 告子가 버드나무→(인위적 교정)→그릇=인성→(본래 그러함)→선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구조적 유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잘못된 類比推理라고 해야 할 것이다. 告子의 類比推理가 형식적으로 옳은 類比推理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본래 그러함’이 ‘인위적 교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인성과 선성의 사이에 인위적 교정이 필요하다면, 告子는 본성의 악함을 주장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위의 조건들이 갖추어 진다면, 우리는 告子의 類比推理를 그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孟子도 告子의 논변형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는 않는다.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인의를 해칠 것은 바로 그대의 말이로다.’ 본래 성악하다고 하는 것은 성악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하는데서 행악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孟子의

반론은 저와 같이 논변의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닌 그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상기의 예외에도 우리는 孟자의 여러 곳에서 類比推理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으나, 孟자의 논변분석은 이 정도에서 그친다. 墨子の 논변에 대한 분석은 유비추리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로서는 의미가 있겠으나 이 글의 경우 간접적인 의미에 그치므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sup>15)</sup>

### 3. 『內經』의 類比推理

類比的 사고가 『內經』 이론체계의 주된 특징임을 증명하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素問·示從容論』에서 찾을 수 있다.

황제가 한가로이 앉아 있다가 뇌공을 불러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術을 받고 書를 암송하는 자이니 만약 능히 여러 학문을 두로 보아 比類하는데 까지 이르러 도리를 통합했다면, 나를 위하여 그대가 능한 것을 말해주시게.” …… 뇌공이 말했다. “제가 脈經上下篇의 수많은 내용을 읽었으나 다른 것을 구분하고 (같은 것을) 비유함에 단점을 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찌 넉넉히 밝혀내겠습니까.”<sup>16)</sup>

여러 학문의 이치를 아우르는 원리로서의 比類는 특정 학문의 이치를 통해 다른 학문의 이치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의 누적적인 종합이 도리의 통합이다. 개별적 도리는 각 학문의 기본 원리를 말한다. 『內經』이 성립된 漢代에는 秦代에 분석의 과정을 거치며 일실된 서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널리 책을 구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 일종의 안내책자를 기술하는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다. 이런 작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漢代武帝(B.C.141-87)로부터 成帝(B.C.32-7)때에 이르기까지 劉向, 劉歆부자에 의해 완성된 七略이다. 그리고 七略의 내용은 반고에 의해서 『漢書藝文志』에 거의 그대로 轉載되었다. 그러므로 『漢書藝文志』를 통해 七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七略이라는 書目輯의 성립시기는 추정되는 『內經』 성립기와 상당히 부합한다. 한서예문지에서는 서명을 輯略,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 兵書略, 術數略, 方技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病법이 육예등과 대등하게 하나의 카테고리리를 이루고 있는 점은 당시의 病법에 관한 평가비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의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病법의 영역과 의학의 영역 간에 비유에 의한 도리의 통합은 病법의 도리가 의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sup>17)</sup> 이런 예에서 病법은 既知의 원시영역에 의학은 未知의 목표영역에 속한다. 病법의 제 개념어나 이론은 최초의 간단한 類比(단순한 개념어의 전용)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轉用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지식의 각득, 앞의 확장이라는 類比의 특성이 드러나는 학문 간의 類比는 A(病법)(A1, A2, A3...)→B(의학)(B1, B2, B3...)로 형식화시킬 수 있다. A는 既知의 영역이고 B는 未知의 영역인데 A1, A2등은 病법의 개념어나 이론을, B1, B2등은 의학 영역으로 전용되어 들어간 개념어나 이론을 가리킨다. 기후 변화에 따른 病변을 알아내고 病인으로서의 외인을 파악했을 때, 病법의 客은 전용하기에 좋은 개념어였을 것이다. 病법과 의학간의 類比의 단초인 A1에서 B1으로의 轉用은 A1과 짝 개념어인 A2로부터 B2로의 전용을 가능하게 했을 것인데 病법에서 客의 짝 개념어인 部를 客을 막아선 일차적 저지선인 皮膚를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단계가 이 경우에 속한다. 기존에 행해진 類比, A1→B1과 A2→B2를 통해 강화된 두 영역간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은 A3에서 B3로의 類比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 단계는 A1→B1으로의 전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깨달음을

15) 墨子の 논변을 類比推理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로는 진영작의 ‘類比推理로서의 묵변’ 중국고대 사유방식 탐색. 양유빈, 황준걸편. 201~229p를 참조할 것. 이 글에서 진영작은 묵변의 辟 侷 援 推가 각각 類比推理의 특정한 유형임을 분석하고 있다.

16)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 1065. “黃帝燕坐, 召雷公而問之曰 汝受術誦書者, 若能覽觀雜學, 及於比類, 通合道理, 爲余言子所長... 雷公曰 臣請誦脈經上下篇, 甚衆多矣, 別異比類, 猶未能以十全, 又安足以明之.”

17) 여기서 도리는 이론체계 혹은 개념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포하는 推理가 행해지는 단계다. 그래서 營衛라는, 병법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客部와는 다른 병법의 하위 범주에 드는 개념어가 의학영역으로 전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의학의 이론은 보다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기지의 A영역에서 미지의 B영역으로의 개념어와 이론의 전용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B영역에 고유한 특성에 의해 수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의학의 영역에서는 이론적 추론이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수정이나 거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과정을 포함하여 표현한다면 앞의 가설모델 A(既知의 영역)(A1, A2, A3.)→B(未知의 영역)(B1, B2, B3.)(모형1)는 A(既知의 영역)(A1, A2, A3.)→유사성의 각인→B(?, ?, ?...)→수정, 거부→B(未知의 영역)(B1, B2, B3.)(모형1의 심리모형)로 바꿀 수 있다. 한의학에서 병법의 개념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지식의 각득과 확장이라는 효과를 포함하는 類比推理의 결과물이며 단순히 표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비유는 아니다. 部등의 개념어가 전용된 최초의 예가 의학의 영역이라는 점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한다.<sup>19)</sup>

#### 4. 『內經』의 비유 모델

의학이론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병법과 의학 사이의 類比와는 달리 『素問·靈蘭秘典論』의 關部제의 類比는 비유의 형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關部제의 類比에서 關部제와 의학의 두 영역이 모두 누구에

게나 잘 알려진 수준의 내용이며 또 그것이 단순한 비유일 경우에는, 推理를 통한 새로운 앎의 각득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기존에 이미 이와 유사한 비유가 통용되고 있었고 『內經』에 사용된 關部제의 개념에 한대 關部제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關部의 일반적 개념이 전용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비유에 그치는 것이다.

단순한, 사회의 관리시스템에 관한 아이디어는 勞心者와 勞力者의 職分을 주장하는 孟子의 논변에서 그 맥아를 찾을 수 있다.<sup>20)</sup> 孟子의 생각은 荀子의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목에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거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힘은 소만 못하고 달리는 말만 못합니다. 그런데도 소나 말이 부림을 당하는 것은 어찌서 입니까. 말하기를 사람은 무리 지을 수 있고 저들은 무리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21)</sup> 『呂氏春秋』에서는 순자와 유사하지만 보다 진일보된 논술을 찾을 수 있다. ‘무리가 모이는 것은 서로 더불어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sup>22)</sup> 중국에 특이한 關部제의 발달은 이와 같은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추상적 인식에 기반했을 것인데 『管子』에서 關部제는 사람의 심리시스템과 연결된 형태로 표현된다. ‘심장은 몸에 있어서 군주의 자리요, 구구는 직분이 있으니 이는 관직의 나뉘고 같다. 마음이 도를 따르면 구구는 리에 순행한다.’<sup>23)</sup> 『素問·靈蘭秘典論』에서 關部제의 유비는 보다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심은 군주의 관으로 신명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폐는 보좌하고 계도하는 관으로 세세한 마디를 조절하는 기능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간은 장군의 관으로 모려가 그로부터 나옵니다. 담은 중정의 관으로

18) 史記·五帝本紀에서는 ‘황제가 옮김에 일정한 처소가 없었고 사병으로 영위하였다’ 하고 있으니 영위는 군대의 진열과 관련된 개념어로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內經의 위기 영기의 개념어는 다른 영역으로부터 類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병법에서의 영위의 개념을 근거로 의학의 영역에서 같은 개념을 상정하였고 이로써 몸 안의 衛氣 營氣의 개념어를 구상했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도 않는 위기와 영기를 깨닫게 된 것은 類比의 각득의 효과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19) 이와 관련된 내용은 鄭宇鎮 拙稿의 치료와 병법의 類比. 원전학회지. 2006년 2호를 참조할 것

20) 漢文大系本 5卷·孟子·滕文公上. 東京. 富山房. 1912. p. 19.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

21) 漢文大系本 5卷·荀子·王制. 東京. 富山房. 1912. p. 20. “力不若牛, 走不若馬, 而牛馬爲用 何也 曰人能羣 彼不能羣也.”

22)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p. 1321. “群之可聚也, 相與利之也.”

23) 漢文大系本 13卷·管子·心術上. 東京. 富山房. 1912. p. 1. “心之在體, 君之位也 九竅之有職官之分也 心處其道 九竅順理.”

결단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 )者, ( )之官.”라는 특정한 장부를 특정한 관에 빗대어 표현한 위의 유비는 장부라는 영역에 있는 특정한 장부의 전체 장부에서의 위치와 관료제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관의 전체 관료제에서의 위치를 연결한 비유다. 병법의 유비에서는 기지의 영역인 병법에서 미지의 영역인 의학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각득의 과정인 興起가 동반됨에 비해 관료제의 유비에서는 이런 興起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의학영역의 특정한 정보를 관료제의 개념어를 빌어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병법의 類比가 병법의 이론을 기준으로 의학의 개념어가 어느 정도 배열되는 형식, A(既知의 영역)(A1, A2, A3.)→B(未知의 영역)(B1, B2, B3.)(모형1)이었다면, 관료제의 類比는 의학 내용을 설명함에 따라 관료제의 개념어가 차례로 배열되는 형식을 띄게 된다. A(既知의 영역)(A1, A2, A3.)→(既知의 영역)(B1, B2, B3.)(모형2). 이 모형을 심리과정을 더하여 형식화 시킨다면 A(既知의 영역)(A1, A2, A3.)→유사성의 각인→유사개념의 탐색→B(既知의 영역)(B1, B2, B3.)(모형2의 심리모형)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모형1의 심리모형을 A(기지의 영역)(A1, A2, A3.)→유사성의 각인→B(?, ?, ?.)→수정, 거부→B(미지의 영역)(B1, B2, B3.)(모형1의 심리모형)으로 표현한 바 있다.

모형1과 모형2의 두 모형간에는 既知에서 既知로의 전개인가 혹은 既知에서 未知로의 전개인가라는 형식적인 차이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상이점 외에 ‘의도의 有無’에 의해서도 구분된다. ‘모형1의 심리모형’에서의 ‘유사성의 각인→B(?, ?, ?.)→수정, 거부’의 과정은 ‘모형2의 심리모형’인 ‘유사성의 각인→유사개념의 탐색’의 과정과 부합한다. 관료제의 지식은 유사개념의 탐색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두 영역간의 比附에 적합하게끔 재배열된다. 그렇기 때문에 君主와 神明의 관계가 관료제도의 특수한 관계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뒤에 “神明出焉”의 설명이 부가된 것은 관료제의 지식이 의학영역에 적용되기 위해 재배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君主와 神明을 연결하는 것이 통념적 수준

에서 벗어났다면 군주라는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속성을 선별하여 즉 재배열하여 제시한 것일 수 있다.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將軍이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들 예를 들면 부하들을 통솔하거나 전투에 나가서 직접 싸우거나 하는 것 중에서 유독 謀慮를 주로 선별한 것은 이런 재배열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sup>24)</sup>

이런 경우에도 재배열은 의도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의도성은 비유를 유비추리로 부터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므로 관료제의 유비와 병법의 유비의 모델은 형식상의 차이 외에도 심리과정에서 드러나는 의도성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의도성이 수사를 위한 비유의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관료제의 유비가 비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관료제의 유비가 비유라고 해서 그 의미가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두 영역사에 비유가 가능하다는 것은 두 영역의 심층부에 공통된 토대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바, 이 공통된 토대를 찾아냄으로써 『內經』의 이론적 특성에 접근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관료제 유비의 의의를 『素問·靈蘭秘典論』의 앞 인용부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무릇 이러한 12관은 서로의 기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군이 밝으면 아랫사람들이 편안하고 이로써 양생하면 장수하여 종신토록 위태롭지 않습니다. 이로써 세상을 다스리면 크게 번창합니다. 임금이 밝지 않으면 12관은 위태로와 지고 12관 상호간의 통행로가 막히어 통하지 못하면, 몸은 크게 상합니다. 이에 따라 양생하면 재앙이 있을 뿐이고 이에 따라 천하를 다스리면 그 증가는 크게 위태로워질 것이니 삼가고 삼가야 합니다.<sup>25)</sup>

24) 여기서의 판단이란 아무리 용감하고 통솔력이 있는 장군이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는 장수는 제대로 된 장수라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5)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 181. “凡此十二官者, 不得相失也. 故主明則下安, 以此養生則壽,

명령의 전달과 집행, 집행결과와 報告체계인 관료제는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체계다. 몸도 이와 마찬가지로 순환체계다. 이런 반복되는 전달체계의 시작이자 종점으로서 임금의 현량함은 나라를 평안히 할 것인데 몸에 있어서 특히 심리체계로서의 몸에 있어서 심장은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전달체계로서의 관료제 중 하나의 단계도 생략할 수 없는 것처럼 몸의 장부시스템도 어느 하나도 빼 놓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호소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그리고 몸의 병환을 의미할 것이다.

병법과 의학영역 사이에 유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영역으로부터 추상화된 체계가 전제되어 있을 것인데 관료제의 유비에 있어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관료제 유비의 예를 통해, 순환과 통제 등을 포함하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병법과 관료제의 영역이 모두 관리시스템이라는 통제를 전제하는 순환시스템의 구체적인 모델이라는 전제하에서 『內經』 이론체계의 특성을 이러한 관리시스템의 특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를 관리시스템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체의 구조적 특성은 2차적인 특성이 되고 오히려 신체의 관리시스템의 특성에 상응하는 기능이 1차적인 성질이 된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신체와 생리, 병리적 특성은 있는 그대로 기술된다기보다는 관리시스템이라는 모델을 통해 보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結論

연역법의 경우, 논증의 전제로부터 진리가 도출되므로 어떤 지식도 새롭게 얻어질 수 없음에 비해 비형식논리에 속하는 類比推理는 既知의 영역을 기반으로 未知의 영역에 존재하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해

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類比의 실례를 살펴보면 시를 매개로 해서 春秋戰國시대 외교적 언사로 쓰인 경우가 있었고 戰國期에 접어들면서는 논변의 시대적 요구에 응해 논리적 주장에 쓰인 예가 있었으며 이 글에서 밝히지는 않았으나 한대에 들어오면서 春秋決獄이라는 법적용의 측면에서 운용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類比적 思惟의 형식은 A:a=B:(b)이었다. 『內經』속에서, 比類는 여러 학문의 이치를 아우르는 원리로서, 어느 한 분야의 이론 체계를 통해 다른 학문의 이치를 파악해나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관료제와 병법의 유비만을 예로 들었으나 이 외에도 천지구조의 유비, 經水의 유비 등 다른 경우를 찾을 수도 있다.

유비의 사유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지식의 각득이라는 興起의 효과를 동반하는 유비추리의 모델이 하나이고 둘은 이런 흥기의 효과가 없이 기존의 지식을 比附하는 비유의 모델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병법의 유비를 既知의 영역에서 未知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모형1로 관료제의 유비를 既知의 영역에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설명하기 위해 既知의 다른 영역의 지식을 재배열하는 모형으로 형식화 시켰다. 이와 같이 영역 간의 類比推理를 통하여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순한 개념의 比附에 불과한 것은 비유다. 그런데 『素問·靈蘭秘典論』에 나오는 “心者, 君主之官.”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 등의 내용은 관료제의 유비가 비유의 형식이 되 단순한 개물간의 일대일의 비유가 아닌 지식의 재배열을 동반하는 구조적 비유모델이다. 어쨌든 두 모형은 기저에 공통된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의학영역의 개념어를 관료제영역의 개념어를 빌어서 표현한 모형1의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의 모델이 기저에 있었고 병법의 영역과 의학영역 간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전제되어 있었다.

의학의 개념어를 다른 영역(A)의 개념어를 빌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內經』의 이론체계가 (A)와 의학 분야간의 공통된 구조체계를 통해 보아진 신체, 생리, 병리관에 대한 기술의 직조물임을 전제하고서야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에 기해 한의

歿世不殆, 以爲天下則大昌. 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 形乃大傷, 以此養生則殃, 以爲天下者, 其宗大危, 戒之戒之.”

학의 해부학에 관한 질의, 해부도에 관한 질의, 기능적 記述에 대한 질의, 순환관에 대한 질의, 관념적 특성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V. 參考文獻

##### <논문>

1. 鄭宇鎮. 치료와 병법의 類比. 대한한의학회지. 2006. 19(2).
2. 박준호. 비형식논리학의 논증과 논증평가 개념. 범한철학. 2004. 34집.
3. 김옥선. 유비추리와 인간사고의 특성. 한국 인지과학회논문지. 제8권 제2호.

##### <단행본>

1. 荀子. 荀子. 東京. 富山房. 1912.
2.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3. 司馬遷. 史記.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4. 이영애. 類比思考 analogical thinking. 한국 학술진흥재단. 1997.
5. 譚戒甫. 墨辨發微. 墨辯正名(1). 北京. 中華書局. 1996.
6. Keith J. Holyoak and Paul Thagard. Mental Leaps Analogy in Creative Thought. London. The Mit Press. 1995.
7. 김옥선. 類比推理의 유형과 기준. 서울. 이화여대대학원. 1994.
8.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9. 左傳. 東京. 富山房. 1912.
10. 論語. 東京. 富山房. 1912.
11. 孟子. 東京. 富山房. 1912.